광주 8월 주택 가격 상승폭 확대

전·월세도 '들썩' …미분양주택은 8개월째 그대로

임대차3법 시행 후 오름세 뚜렷…"좀더 지켜 봐야"

가을 이사철을 앞둔 지난달 광주지역 주택 매매가격의 상승폭이 확대된 가운데 전세가격도 가파른 상승세를 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광주지역 준공 후 미분양주택은 31가구로 8개월째 단 한가구도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가격은 임대차 3법 이후 아파트 전세매물 부족 현상이 나타나면서 상승세를 타자 비교적 가격이 부담이 적은 연립·단독주택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상승폭이 크게 확대됐다.

한국감정원이 1일 발표한 '2020년 8월 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전월대비 0.07% 상승해 전월(0.04%)대비 상승폭이 커졌다.

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광주지역 전세가격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주택종합 전세가격은 0.09% 상승해 전월(0.03%)에 비해 상승폭이 커졌다.

광주지역 전세가격은 지난달 31일 임대차3법 시행 이후 오름세가 뚜렷했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으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핵심으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전월세신고제를 핵심으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에 포함된다. 이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한데 이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날부터 시행됐다.

한편 지난달 현재 광주지역 준공 후 미분양주택은 31가구로 지난해 12월부터 8개월째 단 한가구도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2020년 7월말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에 따르면 광주 미분양 주택은 31가구, 전남은 1,244가구로 전월과 같았다. 광주 미분양은 지난 3월 32가구에서 4월 31가구로 줄어든 후 4개월째 변동이 없었다. 같은 달 분양 실적은 '0'로 지난해 같은 달 3,403가구에 견줘 순감했다.

광주 미분양 31가구 모두는 악성인 준공 후 미분양 주택으로 지난해 12월부터 8개월째 줄어들지 않았다. 전남지역 준공 후 미분양은 731가구로 전월과 변동이 없었다.

지역 중개업소 관계자는 "전세시장은 임대차보호3법 발표를 즈음해 상승세가 절정을 보였지만, 대책의 효과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조심스런 전망을 내놨다. /서미애 기자

SK텔레콤은 신한은행과 '5G MEC 기반 미래 금융 서비스 공동 발굴을 위한 파트너쉽'을 체결했다.

SK텔레콤, 5G 기반 금융서비스 혁신

신한은행과 업무 협약 체결

SK텔레콤은 신한은행과 SK텔레콤 본사에서 '5G 모바일에지컴퓨팅(MEC) 기반 미래 금융 서비스 공동 발굴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력을 통해 양사는 ▲5G MEC 기술 적용 미래 금융 서비스 공동 연구개발(R&D) 협력 모델 구축 ▲디지털 신기술 기반 신규사업 기회 발굴 ▲5G와 인공지능(AI) 등 미래금융 관련 핀테크·스타트업 지원을 통한 혁신 생태계 활성화 등을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SK텔레콤과 신한은행은 5G MEC 기술이 적용되는 미래 금융 서비스 공동 R&D협력의 대표 사례로 신한은행 명동 빌딩을 'Expace(Experience Space)'로 리모델링해 고객들이 선진 금융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예정이다.

양사는 Expace 5층에 '5G MEC기반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5G 기술이 적용되는 미래 금융서비스 관련 공동 R&D 를 진행, 미래금융 서비스의 산실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테스트베드에서는 5G, AI 등 IT기술을 기반의 금융서비스 기획 및 테스트를 통해 향후 신한은행 전 지점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SKT의 선진 양자암호 기술을 바탕으로 신한은행 모바일 앱 'SoL'에 양자 난수 발생기(QRNG)를 적용한 새로운 양자보안 모바일 뱅킹 서비스도 검토한다. /이나라 기자

위니아, 김치냉장고 딤채 무상점검

위니아딤채는 김장철을 앞두고 15년 이상 된 김치냉장고 '딤채' 무상점검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2005년 9월 이전에 제조된 뚜껑형 김치냉장고 딤채를 사용하고 있는 고객이라면 누구나 점검을 받을 수 있으며 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위니아딤채 관계자는 "가전제품을 장기간 사용할 경우 부품 노후화나 먼지 등으로 화재 위험성이 가중된다"며 "이번 기회에 점검을 받길 적극 권장한다"고 말했다.

aT, 농식품 수출물류비 추가지원 확대

항공운임 표준물류비 7%·선박운임 kg당 9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위기에 봉착한 생산농가와 수출업체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농식품 수출물류비 추가지원을 9월부터 12월 선적분까지 확대 운영한다.

1일 aT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농식품 수출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부의 수출물류비 추가지원이라는 발빠른 대처로 올해 8월까지 수출업체들은 기존 수출거래선 유지와 신시장 개척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반기에 수출이 집중되는 배, 단감, 사과 등 신선농산물을 비롯해 수출농식품 전 품목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함으로써 수출업체의 물류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항공운임은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지속 상승 중인 점을 감안해 표준물류비의 7%를 추가 지원하고, 선박운임은 kg당 9원의 수출물류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따라서 9월 이후 생산농가 소득과 직결되는 신선과실류의 본격적인 수출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와 aT는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올해 2월 말부터 항공·선박운임 현황을 발 빠르게 조사해 수출물류비 추가지원을 시행해 왔다. 수출효자 품목인 신선딸기의 항공운임 지원을 시작으로 버섯·화훼 등 신선농산물에서 전체 농식품까지 지원범위를 넓혔다.

또한 추가예산 확보를 통해 지원기간도 8월까지 확대해왔으며,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농림축산식품 수출액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7월 말까지 약 43억 달러를 달성했으며, 지난해 동기대비 5.6%의 수출 상승을 이끌었다. /박선옥 기자

한국농어촌공사는 1일 제9호 태풍 마이삭 북상에 대비해 긴급안전대책회의를 개최했다. /농어촌공사 제공

농어촌공사, 태풍 대비 태세 강화

긴급 안전대책 회의

한국농어촌공사는 제9호 태풍 마이삭이 북상함에 따라 긴급안전대책회의를 열고 피해예방 대책을 점검했다고 1일 밝혔다.

회의는 부서장을 비롯한 각 지역본부장과 지사장이 참석하는 확대간부회의로 비대면 영상회의로 진행됐다.

공사는 지난달 28일부터, 저수율 70% 이상 저수지에 대한 사전방류와 공사현장 1,077개소 및 배수장 942개소에 대한 긴급점검을 추진해 왔다.

오랜 장마와 폭우로 제방 사면유실 등 피해를 입은 저수지와 D등급 저수지 등 취약 시설에 대해서는 저수지 물빼기, 취약구간 방수포 덮기 등의 조치를 취하고 예찰활동 강화에 들어갔다.

또한 피해시설 응급복구에 필요한 수방자재를 비치하고 배수장시설 정전에 대비해 각 지역 유관기관과 긴밀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며, 피해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한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박선옥 기자

경제 프리즘

특허청, 미래혁신 기업가 양성

특허청은 1일 미래 혁신성장을 이끌 창의적인 기업가를 양성하기 위해 '2021년도 지식재산기반 차세대 영재기업인 육성 사업'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카이스트(KAIST), 포스텍(POSTECH)과 함께 추진하는 이 사업은 창의성과 잠재력을 지닌 만 13~15세 청소년이 대상이다.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전형으로 총 160명(교육원별 80명)을 선발하며, 모집인원의 5%는 교육 소외계층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사회통합 전형으로 뽑는다.

선발된 학생에게는 지식재산 교육부터 창의적 문제해결 방법, 기업가정신, 커뮤니케이션 방법 등 독창적인 발명 영재교육 커리큘럼을 2년간 온·오프라인에서 교육하고, 종합 상담 프로그램도 무료로 제공한다.

머스크 세계 3위 부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최근 주식 분할에 힘입은 테슬라 주가 상승으로 세계 3위 부자가 됐다.

블룸버그 억만장자지수에 따르면 머스크는 테슬라 주가 상승으로 재산이 1,154억달러로 늘어 종전 3위인 저커버그(1,108달러)를 제쳤다. 테슬라 주가는 5대 1 주식 분할 후 첫 거래일인 이날 498.32달러에 거래를 마감, 12.57%나 급등했다.

올해 들어 머스크는 500% 가까이 급등한 테슬라 주가 덕에 재산이 878억달러가량 늘었다. 지난주부터는 1,000억달러 부자(centibillionaire) 클럽에도 이름을 올렸다.

테슬라는 개인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주식 종목으로 특히 한국 개인투자자의 지분도 약 1%에 달한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삼성·LG전자 '녹색상품' 수상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소비자가 선정하는 '2020 대한민국 올해의 녹색상품'에서 나란히 수상했다.

대한민국 올해의 녹색상품은 비영리 시민단체 녹색구매네트워크가 주관하는 시상식으로, 소비자 평가단과 함께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선정한다.

삼성전자는 '2020 대한민국 올해의 녹색상품'에서 자사 제품 12개가 선정돼 최다 수상기업에 올랐다고 1일 밝혔다.

올해의 녹색상품으로 선정된 삼성전자 제품은 ▲갤럭시 S20 시리즈 ▲갤럭시 북 플렉스(Galaxy Book Flex) ▲49형 더 세리프(The Serif) ▲그랑데 세탁기 AI ▲그랑데 건조기 AI ▲비스포크 냉장고 ▲비스포크 식기세척기 등이다.

LG전자는 대한민국 올해의 녹색상품에서 11년 이상 수상한 기업에만 수상 자격을 부여하는 최고 권위 '녹색마스터피스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우리지역 광주·전남 제품
지역인재 고용창출에 앞장서는 기업
airpurifier DK
스탠드형
사무실, 가정용
어린이집, 유치원 특화제품
벽걸이형
경로당, 병원, 노인복지시설
사무실, 초중고 학교용 특화제품
DK 디케이 주식회사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